



잃어버린 자전거 (초등 3학년)

고래가숨쉬는도서관 | 최인혜 글 / 유수정 그림



표지 탐색하기

<잃어버린 자전거> 책 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책을 읽기 전에 생각해 보기]

1) 책 앞표지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나요?

⇒

2) 책 앞표지의 그림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

3) 책 앞표지를 보고 이 책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를 써보세요.

⇒

4) 책 제목 '잃어버린 자전거'를 통해 상상해볼 때,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 것 같은가요?

⇒

[책을 읽고 나서 생각해 보기]

5) 이 책에 실린 두 편의 동화 중 '잃어버린 자전거'의 줄거리와 주제를 생각할 때, 책에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하고 싶은가요?

⇒



잃어버린 자전거 (초등 3학년)

고래가숨쉬는도서관 | 최인혜 글 / 유수정 그림



어휘력 쑥쑥 키우기

다음 <잃어버린 자전거>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누구랑 놀지……?' / 이 세상에 혼자만 떨어져 나온 ()가 된 것 같다.

요즘 들어 자전거 타기가 유행이다. 그래서 술래잡기도, 축구도, 야구도 같이할 친구가 없다. 그동안 태민이와 단짝이 되어 놀았다. 자전거 ()를 쫓아다니기도 하고 정글짐에 올라가 잡기 놀이도 했다. 태민이는 신나게 놀다가도 자기 엄마만 지나가면 쫓아가서 매달리며 자전거를 사 달라고 ()를 썼다.

(나) 나도 몇 번 자전거를 갖고 싶다고 말했다. 엄마나 할머니한테 말한 것이 아니라 ()로 중얼거렸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을 길게 내쉬고, 엄마는 돌아누워 ()도 내지 않는다. 태민이 엄마처럼 자전거 타령한다고 야단이라도 쳤으면 좋겠다.

1) 문맥상 (가)의 각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말을 아래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 [보기]
- 공무니 : 사물의 맨 뒤나 맨 끝. 뒤공무니.
 - 때 : 부당한 일을 억지로 요구하거나 고집하는 짓.
 - 외톨이 : 다른 짝이 없이 홀로 있는 사물.

2) 문맥상 (나)의 각 빈칸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말을 아래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 [보기]
- 한숨 : 근심이나 서러움이 있을 때 길게 몰아서 쉬는 숨.
 - 숨소리 : 숨을 쉬는 소리.
 - 혼잣말 : 혼자 중얼거리는 말. 혼잣소리.



잃어버린 자전거 (초등 3학년)

고래가숨쉬는도서관 | 최인혜 글 / 유수정 그림



어휘력 쑥쑥 키우기

다음 <참새가 없어졌어요>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할아버지! 참새가 지붕 속으로 들어가요.”

은별이는 ㉠추녀 밑으로 달려갔다. 할아버지도 다가와 추녀 끝을 올라다봤다. 추녀 끝에 조그만 틈새가 있다.

“용케 빈틈 찾아들었구먼!” / “할아버지! 참새가 왜 지붕 속으로 들어가요?”

“새끼 치려구 든 거여.” / “지붕 속예요?” / “그려.”

어느새 나왔는지 참새가 지붕 위에 앉아 ㉡두리번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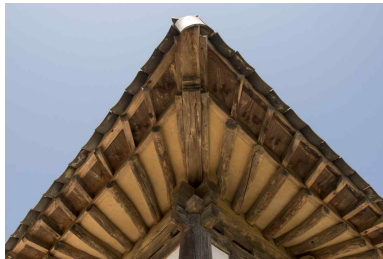
“자꾸 올라다보지 말어.” / “왜요?” / “알 낳구, 새끼 쳐야 허는디 방해되잖어.”

“정말요! 저 지붕 속에서 알도 낳아요?”

“새끼 치려구 지붕 속으로 들은 거잖여.”

1) 다음은 윗글에서 밑줄 친 ㉠의 뜻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를 참고할 때, 오른쪽 한옥 지붕의 사진에서 ‘추녀’는 어느 부분인지 표시하여 보세요.

추녀 : 네모지고 끝이 번쩍 들린, 처마의 네 귀에 있는 큰 서까래. 또는 그 부분의 처마.



2) 다음 중 윗글에서 밑줄 친 ㉡의 뜻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 ① 날카롭게 노력보았다.
- ② 눈을 크게 뜨고 여기저기를 자꾸 휘둘러 살펴보았다.
- ③ 눈길을 모아 한 곳을 똑바로 바라보다.



잃어버린 자전거 (초등 3학년)

고래가숨쉬는도서관 | 최인혜 글 / 유수정 그림

*<잃어버린 자전거>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



독해력 쑥쑥 키우기

다음 <잃어버린 자전거>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나는 저녁을 먹으며 할머니에게 자랑했다.

“나 자전거 잘 탄다!” / “자전거가 어디 있는디?” / “응, 태민이 거.”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어이구, 남들 다 가진 자전거 하나 못 사 주구.”

이번에 하나 사 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밥이 목구멍을 꼭 메웠다. 나는 물을 벌컥 벌컥 마셨다. 엄마는 말없이 내 손가락에 반찬을 올려놨다. ㉡나는 끝내 사 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밥만 먹었다.

(나) 잠자리에 누워서도 자전거를 타는 기분이다. 바람이 이마를 스칠 때 그 상쾌한 기분은 생각만 해도 짜릿하다. 나는 누운 채로 발을 높이 쳐들고 신나게 굴렀다. 숨이 차고 허벅지가 당기는 것이 정말 자전거를 타는 것 같다.

㉢“나도 자전거가 있었으면…….”

1) (가)에서 할머니의 말 ㉠에 담긴 마음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 ① 아프다고 누워만 있는 태민이 엄마에 대한 원망
- ② 손자(‘나’)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
- ③ 철없이 자전거 이야기를 계속하는 손자(‘나’)에 대한 서운함

2) (가)에서 ㉡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

3) (나)에서 ㉢의 말줄임표에 들어갈 말을 써보세요.

⇒



잃어버린 자전거 (초등 3학년)

고래가숨쉬는도서관 | 최인혜 글 / 유수정 그림

*<잃어버린 자전거>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



독해력/사고력 쑥쑥 키우기

다음 <잃어버린 자전거>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놀이터로 들어갔다. 그네에 털썩 주저앉아 숨을 고르는데 그늘진 구석에 쓰러져 있는 자전거가 눈에 들어왔다.

‘누가 잠깐 놓고 어디 갔나?’ / 나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아무도 없다. 천천히 자전거 앞으로 다가갔다. 자전거는 때에 찌들고 흙이 묻어서 그런지 낡아 보였다.

‘누가 버렸나?’ / 자전거를 세워 끌어 보았다. 스스스~. 소리를 내며 바퀴가 굴러간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자전거를 끌고 다니니 꼭 내 자전거 같다. 나는 자전거를 끌고 놀이터를 한 바퀴 돌았다. 누군가 쫓아와 자전거 내놓으라고 소리칠 것 같아 가슴이 벌렁거린다. 얼른 자전거를 있던 자리에 놓고 슬그머니 그네에 앉았다.

(나) ‘누가 버리고 간 건지도 몰라. 낡은 자전거잖아. 내가 끌고 갈까?’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그러다 자전거 주인이 나타나면 나더러 도둑놈이라고 할 거야.’

자전거를 보면 볼수록 자꾸 가슴이 뛰었다. 어둠은 점점 더 짙어졌다.

‘그냥 들어갈까? 아니야, 조금만 더 기다려 봐야지.’

나는 그네에 앉았다 일어났다 하며 놀이터를 서성였다.

윗글을 읽고 나서 알맞게 말한 것을 두 개 고르세요.

- ① (가)에서 ‘나(준일)’는 자전거를 훔치려고 놀이터로 들어갔다.
- ② (가), (나)에서 ‘나(준일)’의 마음속 갈등이 느껴진다.
- ③ (가), (나)에서 ‘나(준일)’의 성격이 단순하고 뻔뻔함을 알 수 있다.
- ④ (나)에서 ‘나(준일)’는 자전거 도둑으로 오해받을까봐 걱정하고 있다.
- ⑤ (나)에서 ‘나(준일)’는 자전거 주인이 오기 전에 빨리 자전거를 가져가려고 한다.



잃어버린 자전거 (초등 3학년)

고래가숨쉬는도서관 | 최인혜 글 / 유수정 그림

*<잃어버린 자전거>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



사고력 쑥쑥 키우기

다음 <잃어버린 자전거>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13단지라는 소리에 가슴이 짹 막혔다. 분명히 내가 가져온 것이라고 의심할 것이다. 13단지 엄마들은 애들이 우리와 어울리는 걸 싫어한다. 13단지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 집에 놀러 가면 처음 한두 번은 반겨 준다. 그러나 몇 번만 가면 못마땅한 듯 본체만체한다. 그러다가 학원 갈 준비해야 한다, 학습지 해야 하니 다음에 놀라며 계속 내몰았다. 그리고 나면 13단지 친구들과는 자연스레 멀어졌다.

(나) 우리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 엄마나 아빠가 없는 집도 많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는 애들도 있다. 엄마가 있어도 새벽에 일을 나갔다가 한밤에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은 아침도 안 먹고 학교에 다닌다. 옷을 갈아입지 않아 냄새나는 아이도 있고 세수도 안 하고 오는 아이들도 있다. 그래서 반 아이들은 가까이 하길 꺼린다. 특하면 놀리고 심하면 따돌리기도 한다. 나도 사실 씻지도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아 냄새나는 아이들을 보면 눈살이 찌푸려진다. 그러면서도 속상하다.

‘저 모양이니까 우리 동네 아이들을 싸잡아 이상하게 보지!’

(다) “어머나, 고맙습니다. 내내 찾아도 안 보이더니 누가 여기로 가져왔나 봐요.”

아줌마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나 난 그 웃음이 가짜처럼 느껴졌다. 분명 내가 가져온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 단지 아이들의 짓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다.

교실에서 물건이 없어져도 우리 단지 아이들을 먼저 의심한다. 그러다 나중에 찾으면 미안하다고도 안 한다. 다른 아파트 단지 사람들도 늘 우리 단지 아이들을 경계하고 조심한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우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한다.

1) (가)~(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13단지에 사는 사람들의 가정환경에 대해 추측해 봅시다. 표의 빈칸을 알맞게 채우세요.

준일이네 아파트	13단지
임대 아파트여서 가난한 사람들이 산다.	
엄마나 아빠가 없는 집도 많다.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는 아이도 있다.	

2) (가), (다)에서 알 수 있는 '우리(준일이네) 단지 아이들'에 대한 '13단지 엄마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서술하세요.

⇒

3) (나)에서 느껴지는 '우리 동네(준일이네 아파트) 아이들'에 대한 '나'(준일)의 마음은 어떠한지 서술하세요.

⇒

4) 위 2)에 답한 것처럼 생각하는 13단지 엄마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써보세요.



잃어버린 자전거 (초등 3학년)

고래가숨쉬는도서관 | 최인혜 글 / 유수정 그림

* <잃어버린 자전거>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



사고력 쑥쑥 키우기

다음 <잃어버린 자전거>에서 발췌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자전거를 낡은 자전거가 있던 자리에 갖다 놓고 싶었다. 못마땅한 눈초리로 바라보며 자기네 아이와 못 놀게 하던 것보다, 내가 자전거 도둑이라고 의심받는 것보다 불쌍한 아이가 된 것이 더 기분 나쁘다.

나는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고생하는 할머니나 늘 아픈 엄마를 보면 불쌍한 맘이 들지만 나까지 불쌍한 것은 아니다.

(나) “나는 우리 은기가 뭐 주워 오면, 무조건 있던 자리에 갖다 놓고 오라고 야단만 치지 주인을 찾아 줘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거든. 그것이 새 거든 헌 거든 보지도 않고 말이야.”

“정말 기분 나빴구나? 받을 사람 기분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 생각만 해서 미안하다.”

1) 만약 여러분이 '나'(준일)의 친한 친구이고, 준일이가 (가)에 나타난 '나'(준일)의 속마음을 여러분에게 털어놓는다면, 준일에게 뭐라고 말해줄지 써보세요.

2) (나)는 '은기 엄마'가 '나'(준일)에게 한 말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은기 엄마'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는지 써보세요.

⇒



잃어버린 자전거 (초등 3학년)

고래가숨쉬는도서관 | 최인혜 글 / 유수정 그림

* <잃어버린 자전거> 전체를 읽고 나서 푸세요.



표현력/문장력 쑥쑥 키우기

(가)는 <잃어버린 자전거>에서, (나)는 <참새가 없어졌어요>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이를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저녁을 맛있게 먹고 할머니 무릎에 누워 텔레비전을 봤다. 할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무릎에서 풍기는 할머니 냄새가 된장국 냄새 같다. 나는 할머니 종아리를 조물락거렸다. 할머니 종아리는 젓가슴처럼 쭈글쭈글하면서도 말랑말랑해서 좋다. 나는 슬그머니 할머니 젓가슴에 손을 넣었다.

할머니가 내 등을 토닥였다. / “아직 두 애기여.”

“나 애기 아냐. 얼마나 컸다고!” / 나는 할머니한테 더 바짝 달라붙었다.

(나) “참새 왜 떨어졌어요?” / “날아가려다 처졌을 거여.”

“그럼 참새 새끼들이 벌써 다 날아갔어요? 할아버지는 새끼들 날아가는 거 보셨어요?” / “그걸 어떻게 봐.” / “그럼 어떻게 알아요? 날아갔는지.”

“먹이 물어 나른 지 보름 가까이 됐잖어.”

할아버지는 보지 않고도 아는 것이 참 많았다.

1) (가)의 장면처럼 여러분도 할머니와 다정한 추억이 있나요? 떠오르는 일을 짧은 글로 써보세요. 단, 할머니에 대한 느낌과 감정이 잘 드러나도록 쓰세요.

⇒

2) 여러분도 누군가로부터 (나)에서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생각이 든 적이 있나요? 누구와의 어떤 일이었는지 짧은 글로 써보세요.

⇒



잃어버린 자전거 (초등 3학년)

고래가숨쉬는도서관 | 최인혜 글 / 유수정 그림



정답과 해설

예시 답안은 모범 답안과는 다릅니다. 참고만 하시고 너그럽게 채점하세요. ^^

1쪽	(예시 답안) 1) 초록빛 풀이 무성한 풀밭에 커다란 나무 두 그루가 있고 한 나무 아래에 자전거 한 대가 세워져 있다. 위쪽에는 한 남자아이가 자전거를 탄 모습이 그려져 있다. 2)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이 든다. 3) 제목 : 잃어버린 자전거 / 글쓴이 : 최인혜 / 그린 이 : 유수정 / 출판사 : 고래가숨쉬는도서관 4) 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놀다가 잠깐 세워 놓은 사이에 자전거를 잃어버리게 되고, 잃어버린 자전거를 찾아다니다가 어느 숲속 나무 아래에서 찾게 되는 내용일 것 같다. 5) 나 그거 안 타! / 나는 불쌍하지 않아! / 내 자전거가 아니야.
2쪽	1) 외톨이, 꿈무늬, 떼 2) 혼잣말, 한숨, 숨소리
3쪽	 1) 2) ②
4쪽	1) ② 2) 어려운 집안 형편을 알기 때문에 3) (예시 답안) 얼마나 좋을까. / 매일매일 타고 다닐 텐데.
5쪽	②, ④
6-7쪽	1) 임대 아파트가 아니고 부유한(잘 사는) 사람들이 산다. 엄마나 아빠가 없는 집은 별로 없다.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는 아이는 없다. 2) (예시 답안) 가난하고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나쁜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의심한다. 자기 자식들이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을 싫어한다. 3) (예시 답안) 반 아이들에게 놀림 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모습이 안타까우면서도 지저분하게 하고 다니니까 무시당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답한다. 4) (예시 답안)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살기에 바빠서 부모가 아이들을 잘 챙겨주지 못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가난한 집의 아이들 모두가 가정교육을 잘 받지 못했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건 아니랍니다. 가난해도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선입견은 버려주세요.
8쪽	1) (예시 답안) 준일야, 정말 많이 속상하고 기분 나빴겠다. 나도 전에 누군가 나를 동정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데 엄청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빴거든. 그런데 그 자전거를 선물해 주신 분이 너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주신 게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잃어버린 줄 알았던 자전거를 찾아 주니까 너무 고맙기도 하고 감동해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 2) (예시 답안) 어른이라고 해서 어린이에게 일방적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려 하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사람인 것 같다. 부드럽고 솔직한 성품을 가진 사람인 것 같다.
9쪽	생략. 각자 자신의 경험을 써보세요.